

지역 **메아리**

**'즐거움 통기타시대' 김제시 공연**

다양한 문화적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9월 공연이 28일 오후 7시 30분에 김제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즐거움 통기타 시대'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이 발굴한 뛰어난 기타실력과 감수성으로 음악애호가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시작장애인 스타 신재혁과 파워풀한 가창력과 유튜브 등에 4000곡 이상의 동영상이 유포되어 있는 이라희, 해바라기 토크콘서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한열 등이 출연 노래를 듣는 이로 하여금 힐링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에 충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한돈협회, 김제시에 나눔실천**

추석명절을 맞아 김제시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각계각층 기부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회장 김일홍)는 26일 김제시에 이웃사랑 실천으로 관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한돈 400Kg(400만 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이 단체는 명절 때마다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한돈을 기탁해 소외되기 쉬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왔다.

'이웃사랑 한돈 나눔'은 김제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한돈 농가들이 조성한 기금과 한돈 자조금으로 한돈 소비촉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기증한 돼지고기는 관내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는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여 재난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김제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사망자 중 75%(총 40명중 30명)를 차지한다는 소방서 통계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령이 개정(소방시설법 제8조)됨에 따라 화재시 지역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소화기 인명피해 절감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신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친서민 안전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가을철발열성 질환 당부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출혈열·렙토스피라증 등 예방활동 나서

완주군이 가을철발열성 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26일 완주군은 가을철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발병하면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등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 등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고열, 두통, 오심, 근육통,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쥐의 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고열과 두통, 오심, 근육통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에서 11월에 발생하며 감염된 참진드기의 유충, 성충 등에 물려 감염되며 발병하면 발열, 혈소판감소,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보건소는 가을철발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시 긴 옷, 긴 양말 등을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



완주군이 가을철발열성 질환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눕지 말아야 하고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아야 한다.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입었던 작업복 등은 세탁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 등과 같은 감기증상이나 피부발진, 벌레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완주군 보건소(290-30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봉동읍, 희망키움 공부방 사업 추진

**책상·의자 물품 지원**

완주군 봉동읍이 희망키움 공부방 사업을 추진,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부방을 마련해준다.

26일 봉동읍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공부방이 없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희망키움 공부방 마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 중 공부방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이며 선정된 이들에게는 집 청소부터 시작해 도매, 장판 교체, 책상, 의자, 침대까지 물품을 지원한다.

봉동읍은 지역사회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기업인 대유에 이피가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태면서 가능하게 됐다.

최종식 봉동읍장은 "지역기업의 후원과 더불어 지역민들이 환경정비에 봉사하겠다고 나서주면서 이번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동진화도시 완주답게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이같은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문화재단 누에·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 업무 협약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가 한국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6일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협력·발전을 위한 우호적 관계 확립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계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다양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와 함께 연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합문화지구 누에(nu-e)의 임승한 단장은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올해 정라북도 관광문화재단과 진행하는 2017 톨라다 토요문화학교 등을 통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창의적 인재 양성 등 다각도로 협력을 확대해나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협약식에는 복합문화지구 누에 임승한 사업단장과 한국창의과학진흥원 호남센터 박인선 센터장, 완주문화재단 이상덕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하고파"

에버미라클,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6일 (주)에버미라클이 "합찬 비상을 꿈꾸는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에버미라클은 2012년 3월 전북도에 소재한 전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친환경농산물 및 환경개선을 위한 유용한 미생물 복합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보급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환경만큼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기탁하게 되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철 대표는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설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86억 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평선 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활과학고 실험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추석연휴기간 산업단지 24시간 비상근무

완주군이 추석연휴기간 산업단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26일 완주군산업단지사무소는 오는 28일까지 단수사고 사전 예방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치고, 추석 연휴기간 상하수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주산단 종합상황실은 2개반으로 편성되며, 추석연휴 기간 중 수도관 파손 및 오·폐수 관로 등에 대한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응급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장기간 연휴로 오·폐수 발생량의 급감하게 되면, 미생물이 사멸할 수 있어 오폐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미생물 농도를 조정한다.

이와 함께 둔산공원, 취·정수장, 폐수처리장, 중앙분리대, 산단도로 화단 등에 대한 일제 제초작업과 환경정리 작업도 실시, 귀성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상수도 불편 신고는 290-3351, 하수도 불편신고는 290-3361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경찰서, 가을 행락철 특별교통관리 추진

김제경찰서가 11월 30일까지 10주간 가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경찰서 관내에서는 최근 3년(2014년~2016년)에 발생한 전체 교통 사망사고 평균은 24.3명이며 가을행락철인 10월~11월 기간 최근 3년(2014년~2016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24.7%)으로 행락철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김제경찰서에서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 동안 지자체·도로관리청과 협업,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한 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소재 전세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해 행락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